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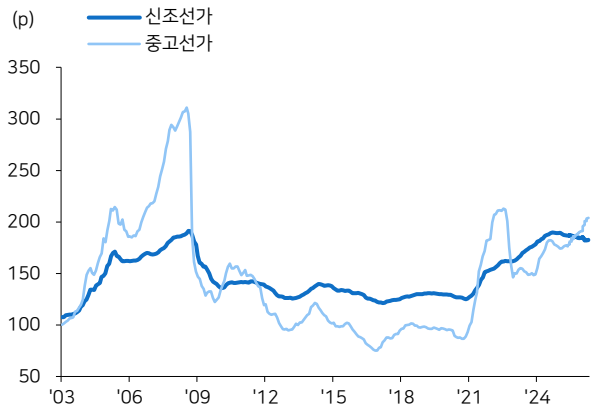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16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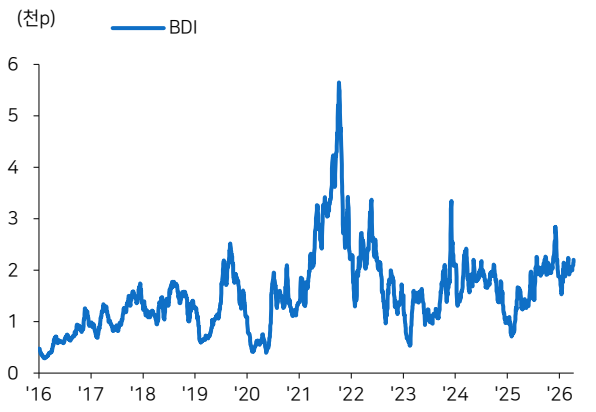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6p (+0.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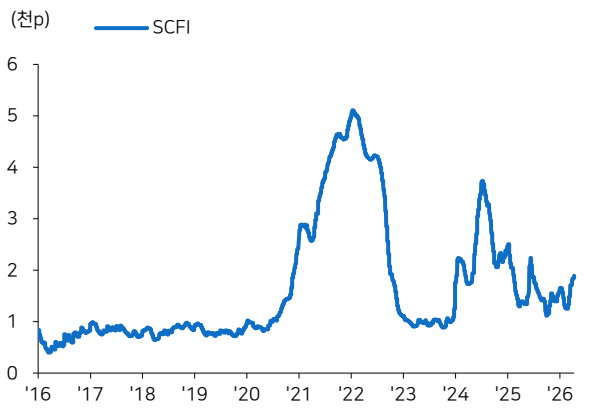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7.0달러 (+4.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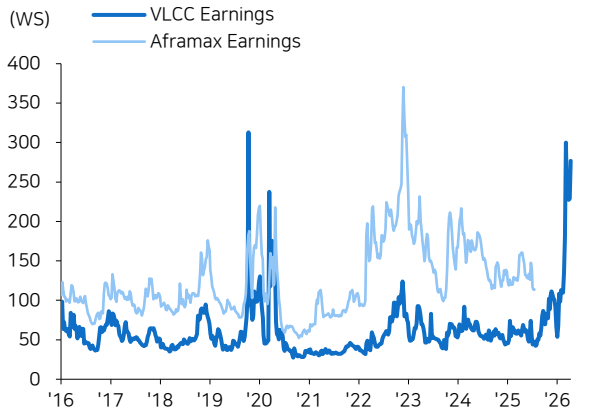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354.0p (+10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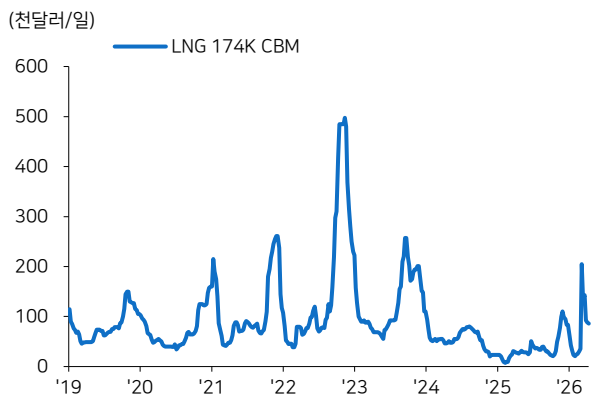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90.0p (+35.8p WoW)



VLCC Spot Rate 276.9WS (+47.8p WoW)



LNG Spot 운임 86.0천달러 (-2.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 나토 30 개국 대사단 초청...조선 기술력 선보여 (아시아경제) https://zrr.kr/xrUkhF

NATO 주재 30개국 대사단이 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를 방문해 한국 조선 분야의 경쟁력과 나토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대사단은 구축함, 잠수함, 무인수상정 등 HD현대중공업이 개발한 함정들과 AI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 현황을 청취하며 해상 방위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해짐. 특히 디지털융합센터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선박 및 디지털트윈 가상 시운전 등 첨단 솔루션을 점검했으며, HD현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해양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려짐.

HD 현대·한화, 이번엔 KDDX '법정 다툼' 치열...또 사업 지연 우려 (뉴스 1) https://zrr.kr/diXO8a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의 영업기밀 보호를 명분으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출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인한 사업 장기 표류 우려가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기본설계 자료 항목 중 12개 항목이 영업기밀에 해당해 공개가 불가하다며 지난달 24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를 14개로 확대한 서증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알려짐. 이를 두고 방산업계에서는 오는 12월 만료되는 '보안 감점' 적용 기한을 넘기기 위한 소송 전략일 수 있다고 전해짐. 방위사업청은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위해 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7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도됨.

Rattled by Trump, US allies eye Japan's biggest arms opening since WW2 (Reuters) https://zrr.kr/hOrEKe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에 편중된 방산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폴란드와 필리핀 등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안보 공약과 우크라이나 ·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무기 공급 부족 상황에서 추진되었으며, 이에 Toshiba와 Mitsubishi Electric 등 일본 주요 방산업체들은 인력 채용과 생산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해짐. 일본은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수출을 시작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전자전 시스템 등 첨단 무기 체계 전반으로 수출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아시아 내 독자적인 방산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 알려짐.

Evergreen seeks $500m from first overseas green bond issue to fund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fq8Qj4

대만 해운사 Evergreen Marine Corp이 16,000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해당 자금은 삼성중공업과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 등에 발주한 친환경 컨테이너선들의 인도 대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24척의 E-클래스 시리즈 중 세 번째 선박인 'Ever Echo'호를 인도한 데 이어 다음 달 네 번째 선박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Evergreen은 현재 한국, 중국, 일본 조선소에 24,000TEU급 LNG 추진선 11척과 16,000TEU급 메탄올 추진선 14척을 포함해 총 53척의 선박을 발주 중이며, 이번 채권 발행은 지속 가능한 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함대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짐.

Capital Tankers 'hits the ground running' with newbuilding finance deals (TradeWinds) https://zrr.kr/4xat0O

그리스 선사 Capital Tankers가 오슬로 증시 상장 이후 한국과 중국 조선소로부터 Suezmax급 탱커 2척을 인도받으며 함대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에 인도된 15.7만 톤급 'Ataraktos'호와 15.5만 톤급 'Aristoklis'호는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건조되었으며, 회사는 이를 위해 약 1억 2,65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부채 조달을 완료했다고 알려짐. 제리 칼로기라토스 대표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로 탱커 시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11월까지 함대를 17척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총 30척의 최첨단 친환경 함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Baltic Dry Index and capesize spot rates hit highest levels this year (TradeWinds) https://zrr.kr/qzY737

건화물선 운임 지수인 BDI가 수요일 기준 2,484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됨. 이번 상승은 BDI 산정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Capesize 선종이 주도했으며, 특히 브라질-중국 간 철광석 노선 물동량 급증에 힘입어 Capesize 평균 스팟 운임은 하루 35,953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전해짐. Panamax와 Supramax 시장 또한 대서양 내 곡물 및 광물 수요 증가와 아시아 지역의 견조한 물동량 덕분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용 선복량이 줄어들면서 단기 용선 계약도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